

회암사의 연혁과 정청·방장지에 관한 복원적 연구

한 지 만

(동경대 대학원 공학계연구과 건축학전공 박사과정 ·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DC2)

이 상 해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동아시아, 선종사원, 고려시대, 나옹, 회암사, 방장, 침당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檜巖寺는 고려 말, 10년 동안 元에 유학하여 臨濟宗을 도입한 懶翁慧勤(1320-76)이 중창한 대규모 선종사원이다.

근래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회암사지를 보면, 중심축이 가람 전체를 관통하고 좌우대칭의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에 확인된 유례가 없는 형태의 건물지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고려 말에 나옹이 유학을 통하여 경험했던 元代 선종가람의 제도를 회암사에 도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암사 중창 당시의 가람배치나 각 전각들의 건축형태와 기능을 보다 정확히 복원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해석과 의미부여를 위해서는, 당시 중국 선종사원과의 비교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역시 중국의 선종사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일본의 중세 선종사원 유구나 관련사료 또한 회암사를 연구하는데 좋은 참고

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고려 말 중창 이후 조선 시대의 폐사에 이르기까지 회암사의 연혁을 발굴성과와 연관지어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유구를 통한 고려 말 중창 가람의 복원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正廳 및 東·西方丈址를 대상으로, 발굴 유구의 분석을 통해 중창 당시의 형태를 복원하고, 이를 宋·元代 선종사원의 方丈제도와 비교분석하여 각 전각의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고찰을 통하여, 고려가 중국의 건축문화를 수용하는 방식의 일면을 살피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가람의 형태와 관련해서 보면, 먼저 1950년대 중반 스기야마노부조(杉山信三)는 나옹이 중창한 회암사가 산지에 입지한 점을 들어 중창 당시의 가람에는 회랑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¹⁾ 그리고 이 무렵 최성봉은 광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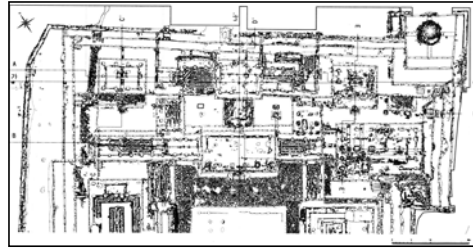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Grant-in-Aid for Scientific Research(19·4207)

1) 杉山信三, 『韓國の中世建築』(相模書房, 東京, 1984.), p. 417. 그리고 나옹의 회암사 중창이 고려에 元의 詰組形式[다포식] 건축이 보급되는 계기로 보았다(pp.

한 사료 분석을 통해 연혁을 정리하고, 지표 유구를 실측 하였으며, 李穡(1328-96)의 『天寶山檜巖寺修造記』(『牧隱文藁』卷2)를 토대로 나옹이 중창한 회암사 가람배치의 추정안을 제시하였다.²⁾

1980년대에 들어와 정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³⁾ 이를 계기로 역시 이색의 기록에 근거한 추정 배치안들이 몇몇 제시되었다.⁴⁾ 특히 허홍식은 불교사의 관점에서 나옹의 활약상과 회암사의 연혁을 상세히 고증하고, 전각들의 기능을 추정하였는데, 그중에서 정청은 회의실 및 行幸한 왕이 머무는 곳, 동·서 방장은 住持와 監主의 거처로 보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발굴조사⁵⁾를 통해 확인된 정청과 동·서방장 유구는 사지 최후방의 8단지 중앙에 위치하며, 건물지의 규모와 배치는 이색의 기록⁶⁾과 일치한다는 것



<그림 1> 회암사지 7·8단지 발굴도면
(도면: 『檜巖寺II-7·8단지 발굴조사보고서-』)

이 확인되었다(그림1). 그리고 이들 유구에 대한 해석을 보면, 정청은 왕의 거처로 동·서에 큰스님이 거처하는 방장을 翼軒으로 거느리고 있는 형태이고, 이는 조선 초기의 궁궐 寢殿과 유사하며, 이 일대(7·8단지)의 전각 구성 또한 궁궐 배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였다.⁷⁾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太祖와의 관련성⁸⁾ 이외에, 『正廳』이라는 명칭, 그리고 조선 초기 궁궐 寢殿과의 형태적 유사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발굴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정청과 동·서방장 일대의 유구 배치는 고려 말 이색의 기록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들을 조선의 太祖나 궁궐 건축과 연관 짓는 것은 먼저 시기적으로 모순된다. 한편 고려시대에 왕이 사원에 行幸하여 머무는 것은 사서에 자주 등장하는 사실로, 회암사에도 나옹의 중창 이후 1391년(恭讓王2) 恭讓王이 南京 행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머물러 佛事를 베풀고 신하들로부터 聖節의 朝賀를 받았기도 했다.⁹⁾

6) 正廳三間, 廳之東西方丈二所各三楹.

7) 윤희상, 『VI. 건축적 고찰』, 『檜巖寺II-7·8단지 발굴조사보고서-』, pp. 370-371.

8) 조선 초 太祖의 잦은 行幸과 太祖가 회암사를 수리하고 宮室을 경영하며 머물고자 했다는 기록(『朝鮮王朝實錄』太宗 2年 6月 9日(辛酉)條: 太上(太祖)欲重修檜巖寺, 且營宮室而留居.) 등.

9) 『高麗史』卷第46『世家』卷第46『恭讓王』2, 3年2月條: 己未. 王發南京. 辛酉. 次檜巖寺, 大張佛事. 窮極奢侈, 飯僧千餘, 使伶官奏鄉唐樂. 王手執香爐, 巡東西僧堂, 以侑食. 順妃亦隨之. 又與妃及世子, 禮佛徹夜. 壬戌. 王及世

392-402.). 이 책의 초고는 1957년에 간행된 『高麗末朝鮮初の木造建築に關する研究』이다.

2) 崔成鳳, 『檜巖寺址의 調査研究-伽藍配置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58.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檜巖寺의 沿革과 그 寺址 調査-伽藍配置를 中心으로-』(『佛敎學報』9,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소, 1972. 10., pp. 159-201.)가 발표되었다. 최성봉은 이색의 기록에 나오는 穿廊, 東廊, 心廊 등을 근거로 회암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 杉山信三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각 전각들의 기능에 대한 검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새한건축문화연구소, 『회암사지 현황조사-1차조사보고서-』, 양주군, 1985. 이 조사를 토대로 1990년에 사지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4) 金鴻植, 『양주 회암사지의 전각배치에 대한 연구』(『문화재』24호, 문화재관리국, 1991.), pp. 101-123.; 許興植, 『檜巖寺』(『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1판, 一潮閣, 1997.), pp. 194-245. 이때까지의 배치 추정안들은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의 것들로 다소 현실성이 결여된 면이 있으며, 특히 佛殿(善光殿)址. 남쪽 일대는 유구의 분포뿐만 아니라 이색의 기록 또한 복잡하여 학자들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5) 1997년의 시굴조사(『檜巖寺I-시굴조사보고서』, 경기도 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001.)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굴 조사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현재 사지 최후방의 7·8단지에 대한 보고서(『회암사II-7·8단지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003.)가 발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색이 기록한 바와 같이 이곳은 行幸한 왕을 위한 거처이기 이전에 선종사원의 방장이라는 점이 기존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듯하다. 또한 이에 앞서 현재까지 선종사원의 방장이 주지의 거처라는 것 이외에, 방장 건축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떠한 행위나 의례들이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연구 성과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곳을 왕의 거처로 단정 짓기 이전에, 고려 말 회암사의 방장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나옹이 경험했던 元代 선종사원의 방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회암사의 연혁과 발굴 유구의 시대성

2-1. 회암사의 연혁

현재까지 회암사의 초창 년대는 알 수 없으나, 사료에서는 12세기 후반 무렵부터 그 존재는 확인된다. 이후 회암사는 元의 臨濟宗 승려 鐵山紹瓊이 들러 편액을 쓴 바가 있고¹⁰⁾, 인도 출신의 선승 指空(?-1361)이 다녀갔으며¹¹⁾, 또 일본에서 온 선승 石翁和尚이 머무는¹²⁾ 등 선종사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

子, 手施僧布一千二百匹, 賜講主僧段絹各三匹衣一襲. 仍御寺門, 受誕日朝賀. 이 기록에서 恭讓王이 머물렀던 전각은 확인할 수 없으나, 왕이 신하들로부터 朝賀를 받은 장소는 정청이 아닌 절의 門[寺門]이었다.

10) 鐵山紹瓊은 1304년(忠烈王30)부터 3년간 고려에 머물렀다. 許興植, 『1306년 高麗國大藏移安記』(『高麗佛教史研究』, 重版, 一潮閣, 1997.), pp. 706-717.; 李禧, 『天寶山檜巖寺修造記』: 第念是寺, 鐵山書額於前, 指空量地於後.

11) 指空은 元을 통해 1326년(忠肅王13) 고려로 와서 2년간 머물렀다. 許興植, 『指空禪賢』,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pp. 13-136.

12) 『懶翁和尚行狀』: …至正十四年甲申, 到檜巖寺, 宴處一室晝夜長坐, 時日本石翁和尚寓茲寺, 一日下僧堂擊禪床云……. 至正十四年은 至正四年(甲申, 1344)의 오기인

듯하다. 나옹도 元 유학 전에 4년간 머물며 수행하였고, 앞서 太古普愚(1301-83)도 회암사의 廣智禪師에게 출가하였다.

『懶翁和尚行狀』¹³⁾에 의하면, 1347년(忠穆王3) 元으로 떠난 나옹은 1358년(恭愍王7) 귀국 할 때까지 大都의 法原寺에 오래 머물며 指空의 법을 이었다. 그리고 宋 이래로 중국 선종의 중심지였던 江南의 杭州와 明州 일대의 여러 선종사원을 遊歷하며 임제종 승려들과 교류하였는데, 특히 杭州 淨慈禪寺¹⁴⁾에 반년 이상(1350년 8월-이듬해 2월) 머물며 平山處林(?-1361)¹⁵⁾으로부터 임제선을 전수받았다.

귀국 전 나옹은 指空으로부터 『三山과 兩水 사이를 골라 머물면 佛法이 자연히 흥할 것이다』¹⁶⁾라는 手記를 받아 고려로 돌아왔다. 이 『三山과 兩水の 사이』란 바로 指空이 다녀간 바 있는 회암사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三山은 三角山(북한산), 兩水는 漢江과 長湍(임진강)을 뜻한다.¹⁷⁾

듯.

13) 『懶翁和尚行狀』은 나옹의 문인 幽谷覺宏이 찬술한 고려본과, 이를 보충한 覺雷의 연대미상본이 있다(許興植, 『懶翁惠勤』(『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pp. 139.). 본 논문에서는 五臺山 月精寺版 『懶翁集』에 수록된 각 편의 저술본을 참고하였다.

14) 1834년(淸, 光緒14)에 重刻된 『勅建淨慈寺志』(卷一『興建』)에는 1342년(元, 至正2) 虞集(1272-1346)이 쓴 『重修淨慈報恩光孝禪寺記』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90년(元, 至元27) 가람이 燒失된 이후 平山處林에 이르러 완성될 때까지의 재건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재건된 가람은 蒙堂, 庫堂, 旃檀林, 觀音殿, 佛殿, 法堂, 羅漢堂, 山門, 選佛場, 宗鏡堂, 千佛閣, 鐘樓, 方丈, 藏殿, 三塔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5) 『勅建淨慈寺志』(卷九『住持』二『平山處林』條)에는, 『日高麗國王, 遣僧齋香幣, 迎闡宗旨, 師辭以年老. 其使乞師四會法語, 錄之而去』의 내용이 보인다.

16) 『懶翁和尚行狀』: 汝還本國, 擇三山兩水間居之, 則佛法自然興矣.

17) 『懶翁和尚行狀』: 茲寺(檜巖寺)近對三角山, 南有漢江, 北有長湍, 三山兩水之記, 昭然可見.

건축역사연구 제17권 6호 통권61호 2008년 12월

귀국 후 나옹은 1370년에 恭愍王의 명으로 처음으로 회암사 주지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王師에 책봉됨과 동시에 당시 동방제일의 道場이라 불리던 松廣寺로 옮겼다. 그리고 1372년에는 회암사에 스승 指空의 浮屠¹⁸⁾를 세웠는데, 이는 곧 회암사에서 행해진 나옹의 첫 번째 건축 조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374년 봄, 다시 회암사 주지에 임명된 나옹은 바로 가람의 중창에 착수하였다. 『檜巖寺禪覺王師碑』에 의하면, 회암사가 指空이 다녀간 이후에 병화의 피해를 입었다¹⁹⁾고 하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1361년에 있었던 紅巾賊의 침입으로 보인다.²⁰⁾ 그러나 그 후로 나옹이 주지에 임명되고 指空의 부도가 건립되는 등 가람 전체가 소실되는 큰 피해는 아니었던 듯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나옹은 병화를 입은 가람의 복구를 계기로, 자신이 元에서 경험했던 선종가람의 형식을 도입하여 회암사를 一新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창공사를 시작한지 2년 만인 1376년(禡王2) 4월 15일에 落成法會가 베풀어졌으나, 臺諫들의 비판으로 결국 나옹을 경상도 密陽의 瑩原寺로 추방하라는 왕명이 내려졌다²¹⁾. 한강을 따라 영원사로 향하던 나옹은 도중에

18) 指空의 유골은 1370년 고려로 옮겨졌는데, 『高麗史』(『世家』卷第42『恭愍王』5)에 의하면 처음 유골은 開京의 王輪寺에 도착하였고, 이것을 恭愍王이 직접 궁으로 옮겨갔다고 하며(1370年 正月)甲寅, 幸王輪寺, 觀佛齒及胡僧指空頭骨, 親自頂戴, 遂迎入禁中), 이후에 다시 회암사로 移安된 것으로 보인다.

19) 『檜巖寺禪覺王師碑』(1377년 비 건립): 師(懶翁)曰, 『先師指空, 蓋嘗指畫重營, 而燬于兵, 敢不繼其志』, 遭謀於衆, 增廣殿宇.

20) 1359년(恭愍王8)의 1차 침입 때에는 西京이 함락되었고, 1361년의 2차 침입 때에는 開京을 비롯해 原州까지 함락되고 왕은 福州(안동)까지 피난갔다.

21) 이에 대해 『高麗史』(卷第133『列傳』卷第46『辛禡』1)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376년 4월)懶翁設文殊會于楊州檜巖寺, 中外士女無貴賤, 齋布帛果餌施與, 恐不及寺門嘖咽, 憲府遣吏禁斥婦女, 都堂又令閉關, 尙不能禁, 放于慶尙道密城郡, 行至驪興神勒寺死.

건축역사연구 제17권 6호 통권61호 2008년 12월

驪州의 神勒寺에서 입적하였고(5월 15일), 중창 공사는 나옹을 이어 주지가 된 絶磻益倫이 마무리 하였다²²⁾. 중창된 회암사의 모습은, 이색의 『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 상세히 전하는데, 불전인 普光殿을 비롯해 說法殿, 正廳과 東·西方丈, 僧堂과 施檀林 그리고 각종 寮舍 등 전각이 총 2백62칸에 이르렀다.²³⁾ 그리고 『高麗國平壤道延山府妙香山安心寺石鐘之碑』에 의하면, 신록사에서 입적할 때까지 나옹을 보필하였던 제자 覺持가 方丈室의 역사에 참여하였다고 한다.²⁴⁾

문헌사료를 통해 파악되는 조선시대의 연혁²⁵⁾을 살펴보면, 초기에 왕사 無學自超

22) 金守溫, 『檜庵寺重創記』(『拭疣集』卷之二『記類』): 有玄陵王師普濟尊者, 受指空三山兩水之記, 遂來居此. 乃欲大創, 分授棟樑, 奔走募緣, 功未及半, 而王師亦逝矣. 其徒倫絕澗等, 念王師未究之志, 踵其遺矩, 以畢其績.

23) 『天寶山檜巖寺修造記』: …普光殿五間面南, 殿之後說法殿五間, 又其後舍利殿一間, 又其後正廳三間, 廳之東西方丈二所各三楹, 東方丈之東羅漢殿三間, 西方丈之西大藏殿三間, 入室寮在東方丈之前面西, 侍者寮在西方丈之前面東, 說法殿之西曰祖師殿, 又其西曰首座寮, 說法殿之東曰影堂, 又其東曰書記寮, 皆面南, 影堂之南面西曰香火寮, 祖師殿之南面東曰知藏寮, 普光殿之東少南曰施檀林, 東雲集面西, 西雲集面東, 東雲集之東曰東把針面西, 西雲集之西曰西把針面東, 穿廊三間接西僧堂, 直普光殿, 正門三間, 門之東廊六間接東客室之南, 門之西悅衆寮七間, 折而北七間曰東寮, 正門之東面西五間東客室, 其西面東五間曰西客室, 悅衆寮之南曰觀音殿, 其西面東五間曰浴室, 副寺寮之東曰彌陀殿, 都寺寮五間面南, 其東曰庫樓, 其南曰心廊七間接彌陀殿, 其北曰醬庫十四間, 庫樓之東十二間, 庫有門, 從樓而東四間, 又折而北六間, 又折而西三間, 缺其西, 直正門少東曰鍾樓三間, 樓之南五間曰沙門, 樓之西面東曰接客廳, 樓之東北向知賓寮, 接客之南面東曰養老房, 知賓之東面西曰典座寮, 折而東七間曰香積殿, 殿之東庫樓之南曰園頭寮三間面西, 殿之南四間曰馬廄, 凡爲屋二百六十二間, 凡佛躬十五尺者七, 觀音十尺, …

24) 『高麗國平壤道延山府妙香山安心寺石鐘之碑』(1384년 비 건립): 吾師(懶翁)爲王師住檜巖, 修造殿宇, 持(覺持)與於方丈室之役焉.

25) 조선시대의 수리 연혁은 기존 연구(최성봉, 위의 논문; 허홍식, 『檜巖寺』, 위의 책; 정혜득·윤한택『II. 회암사 창건·중창의 역사적 배경』, 『회암사』II-7·8단지 발굴조사보고서-』)에서 몇 차례 다루어 진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건축학계에서의 면밀한 원문사료의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이 아쉬우나, 본고에서의 제론은 피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1327-1405)가 주지로 있어 태조에 의한 경제적 지원과 가람의 수리가 있었고, 이것이 왕실의 선례가 되어 억불정책 속에서도 임진왜란 전까지 태종, 세종, 세조, 성종, 명종대에 각각 왕실의 발원에 의한 가람의 수리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대규모의 수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성종대²⁶⁾와 명종대²⁷⁾의 기록을 보면, 수리를 하되 기존의 가람제도는 바꾸지 않았다고 강조한 점이 주목되며, 나옹이 중창한 가람의 기본 골격이 조선시대 전기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왕실의 지원에 의한 가람의 수리는 명종대를 끝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가람은 전후에 승려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재건의 시도가 있었으나, 전란 직후의 피폐한 상황에서 왕실의 지원 없이 이전 규모로의 복구는 생각하기 어렵다.

한편, 연이는 병자호란(1636-37)으로 회암사는 재차 큰 피해를 입었고, 더 이상의 가람 재건은 시도되지 못한 채 폐사로 이어졌다. 전란 직후 1637년(仁祖15) 겨울 이곳에 들렀던 李健(1614-62)은 병화로 인해 허물어진 불전만 남은 채 폐허가 된 회암사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다.²⁸⁾

폐사 시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26) 金守溫, 『檜庵寺重創記』(『拭疣集』卷2): 成化壬辰(1472)春, 我太王太妃殿下, 傳懿旨于河城府院君臣鄭顯祖, 若曰, 「……頗聞築基不固, 殿舍階砌, 積以雜石, 故創造未久, 而屋已老. 今欲閤閣制度, 罔改于舊, 庭除所履, 悉易熟石.……」, ……始於其年月日, 閤幾十有三朔而告訖. 殿舍閤閣, 無所更改, 欄牆廣狹, 無所增損, 而房櫺門闌, 益爲之洞豁. 塗墍丹雘, 益爲之絢煥. 百餘年頽敗之舊寺, 一朝變爲重新之寶刹.

27) 普雨, 『檜巖寺重修慶讚疏』(『懶菴雜著』): 爰自癸亥之歲(1563), 始發誠於運斤, 洎及乙丑(1565)之春, 終竭力於畢手. 妙同舊製, 麗極新成.

28) 李健, 『楊州省仁興君叔父序』(『葵窓遺稿』卷之十一「序」): 歲在丁丑(1637)之冬, ……轉山腰而入, 洞府敞開, 殿宇儼然. 問之, 其山天寶山, 其寺檜岩寺也. 舍馬溪邊, 徒

[표 1] 회암사 연혁

시기	공사	전거
12세기 이전	-창건	『檜巖寺有王子僧元鏡國師手蹟』(『補閑集』卷下)
고려 1372 (恭愍王10)	-紅巾賊 침입으로 가람 일부 소실	『檜巖寺禪覺王師碑』
1372	-指空의 浮屠 건립	『懶翁和尚行狀』
1374 - 1376 (禰王2)	-懶翁의 중창 -1376년 懶翁의 부도 건립	『懶翁和尚行狀』, 『天寶山檜巖寺修造記』(『牧隱文叢』卷2)
조선 1397(太祖6)	-太祖의 명으로 自超의 浮屠 건립	『朝鮮王朝實錄』太祖6年7月22日條, 명문와
1402(太宗2)	-太祖가 가람을 수리, 宮室을 경영하며 머물고자 함.	『朝鮮王朝實錄』太宗2年6月9日條
1434(世宗16) - 1436	-孝寧大君의 발원으로 佛殿 등 전각 수리	『朝鮮王朝實錄』世宗16年4月10日條, 명문와
1460(世祖6) - 1462	-전각 수리 -수리에 동원된 자들에게 도첩 발급	『朝鮮王朝實錄』世祖8年4月4日條, 명문와
1464(世祖10)	-孝寧大君의 발원으로 절 동쪽에 석탑 건립	『大明朝鮮國大圓覺寺碑銘』(『拭疣集』卷2), 『朝鮮王朝實錄』世祖10年5月2日條
1470(成宗1) - 1475	-貞喜王后의 발원으로 가람 수리 -기단·석축 보수, 전각 수리, 단청보수	『檜庵寺重創記』(『拭疣集』卷2), 발굴유구, 명문와
1563(明宗18) - 1565	-大藏殿 불상 수리 (1557-63년 사이) -文定王后의 발원으로 普雨가 전각 수리	『檜巖寺重修慶讚疏』(『懶菴雜著』), 『朝鮮王朝實錄』明宗20年4月25日條
1592(宣祖25) - 1595	-壬辰倭亂으로 소실	『朝鮮王朝實錄』宣祖28年6月4日條
1605(宣祖38)	-승려들에 의한 가람 재건 시도	『朝鮮王朝實錄』宣祖38年6月5日條
1636(仁祖14) - 1637	-丙子胡亂으로 소실, 폐사	『楊州省仁興君叔父序』(『葵窓遺稿』卷11)

이상 문헌사료를 통해 파악되는 고려 말 중창 이래 조선시대의 폐사까지 회암사의 연혁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步而行, 身坐佛堂. …時值兵燹之後, 梵宇荒涼, 僧跡久斷. 唯佛殿巍然獨存, 床卓闢戶, 一不完存. 禪龕佛榻, 狐狸走之. 畫棟朱甍, 鴉鵲棲之. 嗚呼, 千年巨刹, 一朝至此. …

2-2. 가람 유구의 시대성

이상에서 검토한 연혁은,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銘文瓦에 기록된 연대와 시기적으로 대략 일치하고 있다(표2). 명문와만으로 전각의 구체적인 수리 정황까지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문헌사료를 통해 추정되는 공사 기간보다는 더 길고, 공사의 범위도 더욱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명문와를 통해서 보면 대규모의 조영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성종대 보다는 세조대의 수리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출토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정청

[표 2] 회암사지 출토 명문와²⁹⁾

명문	년대	출토 위치 ³⁰⁾
洪武三十年 丁丑三月日	1397 (太祖6)	서방장 기단南-III, 7-기타1內-III, 3-동쪽지역, 가람 西北담장下-III
孝寧大君 宣德甲寅	1434 (世宗16)	정청 기단北-III, 동방장·나한전間 담장下-III, 나한전內-III, 7-기타1內-III, 입실료 기단北-III, 조사전 기단南-III, 서기료 기단西南-III, 동방장 北담장下-III, 부도탑 北담장下-III
孝寧大君 正統丙辰	1436 (世宗18)	
天順庚辰 天順四年	1460 (世祖6)	대장전內-III, 대장전 기단北-III, 서방장內-III, 정청內-III, 정청 기단南-III, 정청 기단北-III, 동방장內-III, 동방장 구들內-III, 나한전內-III, 나한전 기단北-III, 나한전 기단北西-III, 나한전 월대下-III, 시자료 계단西南-III, 입실료 기단北·西-III, 설법전內-III, 서기료內-III, 가람 西北담장下-III, 동방장 北담장下-III, 부도탑 北·西·東담장下-III
成化六年	1470 (成宗1)	대장전 기단西·南-III, 서방장內-III, 정청 기단北-III, 나한전 기단北-III, 나한전 월대南-III, 설법전 기단南-III, 동방장 北담장下-III,
成化十一年 乙未	1475 (成宗6)	2-「가」건물 기단南

29) 표2는 『檜巖寺II-7·8단지발굴조사보고서-』(2003) 및 『회암사지 현장설명회 자료』(2000~2006)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7·8단지 이외 지역은 아직 상세한 발굴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가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명문와 전체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과 동·서방장의 경우, 적어도 태조대에 서방장, 세종대에 정청, 세조대에 정청과 동·서방장, 그리고 성종대에 정청과 서방장이 각각 수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명문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문양이나 제작기법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막새기와³¹⁾도 일부 건물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여기서, 문헌사료를 통해 확인된 회암사의 연혁과 각 건물지에서 출토된 명문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 주목된다. 하나는, 회암사의 가람이 고려 말 나옹이 중창한 이래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전까지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해 완전히 폐허되었다가 재건된 적이 한 차례도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려시대의기와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각 시기별 명문와들이 모두 동일한 층위, 즉 폐사 시점의 문화층(제III층)³²⁾에서 함께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 중수된 건물이 일시에 붕괴되어 폐

30) 건물지의 표기는 「지(址)」자는 생략했다. 건물명 앞의 아라비아 숫자는 건물지가 위치한 단지, 뒤의 로마자 숫자는 출토된 층위, 한자는 방위를 나타낸다.

31) 막새기와 중에서 鬼目文(日暉文, 蛇目文) 와당은 가장 대표적인 고려시대 와당으로, 회암사지에서는 대장전지 내부 및 서쪽 기단 밖 III층, 동방장지 북쪽 담장지 아래 III층, 부도탑 동쪽 담장지 아래 III층, 사리전지 내부 III층 등에서 출토되었다. 한편 와당의 제작 방식을 보면, 瓦範을 놓고 그 위에 점토를 눌러 찍어 성형하는 방식과, 麻布를 펴고 그 위에 점토를 놓고 瓦範을 위에서 눌러 찍어 성형하는 방식이 있다. 이중에서 후자의 방식으로 제작하면 와당의 안쪽 면에 麻布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제작방식으로, 고려시대까지는 전자의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회암사지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와당도 출토되고 있다. 김성구, 『옛기와』, 대원사, 1992.; 박종규, 『암막새』, 『檜巖寺II-7·8단지발굴조사보고서-』, pp. 150-178.

32) 회암사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층위는 크게 5개 층으로 구분된다. 위에서부터 I층은 지표층, II층은 유적상부의 퇴적층, III층은 폐사 시점의 문화층, IV층은 건물지 사용 과정에서 생긴 퇴적층, V층은 건물 축조시의 구지표층이다. 송만영, 「III-3. 층위」, 『檜巖寺II-7·8단지발굴조사보고서-』, p. 34.

사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추정을 가능케 한다.

첫 번째는, 나옹이 중창한 회암사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수차례의 수리가 행해졌으나, 가람의 구조가 바뀌는 정도의 수리나 혹은 가람 전체가 일시에 소실되었다가 재건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직후 승려들에 의한 가람의 재건은, 기존 사역 일부의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회암사가 조선시대에 누차 수리를 거치면서도 나옹이 중창했을 당시의 가람 배치나 전각의 구성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현재까지의 발굴을 통해 노출된 가람의 유구는, 고려 말에 중창되었을 당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유구 분석

본장에서는 발굴 조사된 정청과 동·서방장지의 유구 분석을 통하여, 고려 말 중창 당시의 형태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미 난해한 축부 이상의 구조와 지붕 형태를 중심으로 한 추정안이 제시되어 있으므로,³³⁾ 여기서는 평면의 형태, 내부바닥, 난방시설 등을 중심으로 나옹 중창 당시의 형태를 추정코자 한다.

3-1. 정청지

정청과 동·서방장지는 가람 최후방에 위치하는데, 건물지 전방으로는 舍利殿址, 說法殿址, 普光殿址 등이 중심축선상에 위치하고, 사리전지 동·서로는 入室寮址와 侍者寮址가 마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치는 각 건물지의



<그림 2> 정청, 동·서방장지 발굴도면
(도면: 『檜巖寺II-7·8단지 발굴조사보고서-』)

평면 규모와 더불어 이색의 『天寶山檜巖寺修造記』의 내용과 일치한다. 후방으로는 가람 후면 전체에 걸쳐 계단 모양으로 두 단의 석축을 조성하고, 상단의 석축 위에 담장을 쌓아 사역의 경계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청지의 주칸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며, 내부는 기둥이 없이 보방향 기둥 간격이 7m를 넘는 무주 공간으로 되어있어, 내부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내부 바닥에서는 동바리 초석³⁴⁾이 확인되어 폐사 시점에는 마루가 깔려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지만, 외곽 초석이 모두 고맥이초석이고 초석 사이의 고맥이석도 일부 남아있어, 나옹의 중창 당시에는 전돌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맥이초석과 고맥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고맥이 상부에 놓이는 하인방의 하단부가 기둥의 하단부와 동일한 높이에서 결구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현존하는 고려시대 목조건물인 鳳亭寺 極樂殿(1363년 중수), 浮石寺 無量壽殿(1376년 중수)과 祖師堂(1377년 건립), 그리고 조선시대의 궁궐 정전 등과 같이 내부 바닥에 전돌이 깔린 건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³⁵⁾

34) 동바리 초석은 보방향 3열, 도리방향 2열로 배치되어 있고, 초석 상면은 화계로 검붉게 그을려 있다.

35) 이에 반해 황해도 燕灘郡의 心源寺 普光殿은 고려 말 1374년(恭愍王23)에 건립되었는데, 내부 바닥에는

33) 윤희상, 앞의 글.

3-2. 서방장지

서방장지는 정청지 서쪽에 연접하여 반대편의 동방장지와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선종사원에서 주지의 거처인 方丈 영역이 가람 중심축선상의 최후방에 위치하는 것은, 13-14세기 중국이나 일본의 선종가람배치에서 서포면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몸체에 서쪽으로 정면 2칸, 측면 1칸의 부속 공간이 붙은 형태로, 부속 공간은 후대에 첨건된 것으로 보이며³⁶⁾, 나옹의 중창 당시에는 정면 3칸의 서방장 부분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³⁷⁾

내부 바닥은 전면에 온돌이 설치되었는데, 나옹이 회암사를 중창할 14세기 후반 무렵에는 이미 한반도의 남쪽 지역까지 전면온돌이 보급되어 있었으므로,³⁸⁾ 서방장지의 전면 온돌은 나옹의 중창 당시부터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궁이는 서쪽 벽 중앙과 그 남쪽의 두 곳에 설치되었는데, 모두 부뚜막아궁이이며, 남쪽의 것은 후대에 설치된 보조아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회암사지에서 조사

마루가 깔렸으며, 고백이초석과 고백이가 사용되지 않았고, 하인방도 기둥 하단부에서 일정 부분 울라간 위치에 결구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조선시대의 바닥이 마루로 된 건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36) 유구의 상황으로 보아 이 부속 공간은 첨건된 이후 다시 남쪽과 서쪽으로 각각 한 차례씩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37) 서방장지 서측 기단 안쪽에 이전의 기단석으로 보이는 남북방향의 석렬이 남아있다. 또한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암거가 서방장지 동북쪽 기단 아래에서 시작해 북측기단 외곽을 따라 서쪽으로 진행하여 서북쪽 기단에서 남쪽으로 꺾인 다음, 전술한 남북방향의 석렬의 외곽을 따라 부속공간의 내부를 관통해 남쪽으로 이어지고 있다(그림2). 이것 역시 당초에는 정면 3칸의 서방장 부분만 있었음을 방증한다.

38) 한반도에서 전면온돌은 북쪽 추운 지역에서는 이미 11세기경에는 나타나기 시작하며, 13세기경에는 중부 지역까지 확산되고, 14세기경에 오면 남쪽 끝까지 널리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기문당, 개정판, 2007.), p. 172.

건축역사연구 제17권 6호 통권61호 2008년 12월

된 다른 건물지의 아궁이 유구를 보면, 원래의 함실아궁이를 후대에 부뚜막아궁이로 개조한 예들이 다수 확인 되는데,³⁹⁾ 서방장의 아궁이 역시 나옹의 중창 당시에는 함실아궁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부뚜막아궁이로 개조됨과 동시에 부속공간이 첨건되었고, 또 보조공간이 남쪽으로 확장되면서, 보조아궁이가 추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⁰⁾

한편, 서방장지 서쪽에는 담장지가 북쪽으로 뻗어 석축을 지나 후방의 담장지에 이어져 있고, 반대편의 동방장지 동쪽에서도 동일한 양상의 담장지가 확인 되었는데, 이들 담장은 방장 영역을 구획할 목적으로 나옹의 중창 때부터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담장으로 구획된 방장 후방의 석축 부분에는 花階를 조성하여 방장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⁴¹⁾

3-3. 동방장지

동방장지는 정면 3칸, 측면 3칸⁴²⁾의 몸체와 그 동북쪽의 사방 1칸 규모의 온돌방 유구로 구성되는데, 동북쪽의 온돌방은 후대에 첨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³⁾

한편, 동방장지 내부를 보면, 서방장지와 달

39) 7단지의 건물지 중에서는 侍者寮지와 首座寮址가 그러하며, 入室寮址에서는 함실아궁이가 발굴되었다.

40) 이 과정에서 굴뚝의 위치도 당초의 동북쪽 기단 밖의 후방 석축 부근에서, 기단 안쪽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41) 동·서방장지 전면의 7단지 마당에서 각각 水曹와 庭燎臺를 만들었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이것들 역시 후원의 花階와 더불어 방장에서 감상하기 위한 경관장치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지의 거처인 방장 주위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13-14세기 중국이나 일본의 선종사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42) 서방장지와 기둥 배열은 평면 규모는 같다.

43) 이 방의 온돌은 돌을 놓아 고래독을 만들었고, 아궁이는 당초부터 부뚜막아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리 북쪽에 동서방향의 내진주 초석열이 있고, 이 초석열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 부분의 온돌을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 아궁이도 따로 설치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남쪽 부분의 온돌은 외편을 쌓고 진흙을 발라 고래독을 만든 반면, 북쪽 부분은 돌을 놓아 만들었는데, 다른 건물지의 온돌 유구와 비교해 보면 남쪽의 부분의 외적 고래독이 시기적으로 앞선다.⁴⁴⁾ 따라서 당초에는 남쪽 부분에만 온돌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당초에는 온돌이 설치되지 않았던 북쪽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수납시설이나 불단을 설치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건물지 후방의 마당과 화계를 고려하면, 후원 출입을 위한 퇴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측 외곽에 고백이초석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개방된 퇴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벽체와 창호로 구획되고 바닥에 전돌을 깔 내부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⁵⁾

아궁이는 당초에 온돌이 설치되었던 남쪽 부분의 동쪽 벽체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서방장과 마찬가지로 함실아궁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북측 퇴칸 부분은 후대에 온돌로 개조하면서 별도의 부뚜막아궁이가 설치되었고, 이때 남쪽 부분의 아궁이도 부뚜막아궁이로 개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⁶⁾

44) 회암사에서 발굴된 온돌 유구를 보면, 고래독을 축조하는 재료가 외편과 돌의 두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돌을 놓아 만든 고래독은 후대에 온돌을 수리하거나 증축한 유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45) 이와 유사한 예로 7단지의 시자료지와 입실료지가 있다. 이색의 기록에는 시자료와 입실료가 각각 서향과 동향한다고 하였는데, 시자료지의 서측과 입실료지의 동측에 각각 퇴칸이 구성되어 있어 기록과 부합된다(그림2). 또한 퇴칸 부분의 외곽 초석이 동방장지와 마찬가지로 고백이초석으로 되어 있어, 나옹의 중창 당시에는 역시 외부와는 벽체나 창호로 구획되었고, 바닥에는 방전을 깔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3).

46) 굴뚝은 원래 동방장 서북쪽 기단에 있었으나, 퇴칸을 온돌로 개조하면서 건물 후방의 석축 아래로 옮겨

그런데, 서방장지와는 달리 동방장지의 경우, 후방에 정청지와와의 사이에도 남북방향의 담장지가 있어, 당초 동방장과 정청의 후원 공간이 담장으로 각각 구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정청과 서방장은 후원 공간을 공유하고 있고, 동방장 부분만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양상을 보면, 고려 말 중창 당시 동방장과 정청·서방장이 각기 상이한 기능을 위한 건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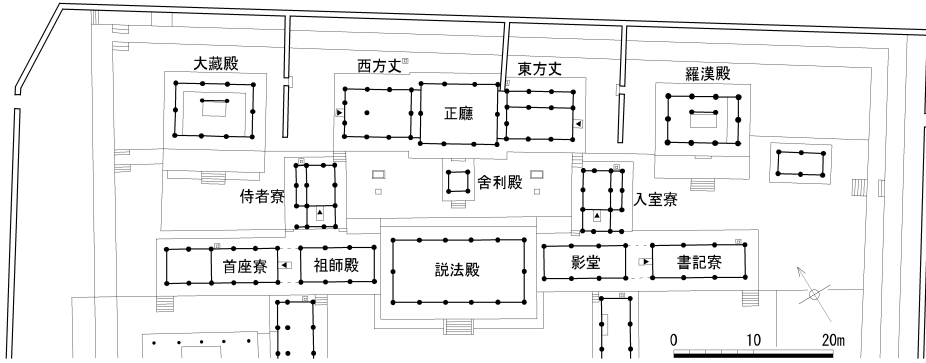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사지 최후방의 8단지에 위치한 정청과 동·서방지로 구성된 일련의 유구는, 그 평면 규모와 주변의 건물지 배치가 이색의 『天寶山檜巖寺修造記』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리고 발굴 유구의 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각 건물들의 고려 말 중창 당시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그림3).

먼저 정청의 내부 바닥은 전돌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를 무주공간으로 처리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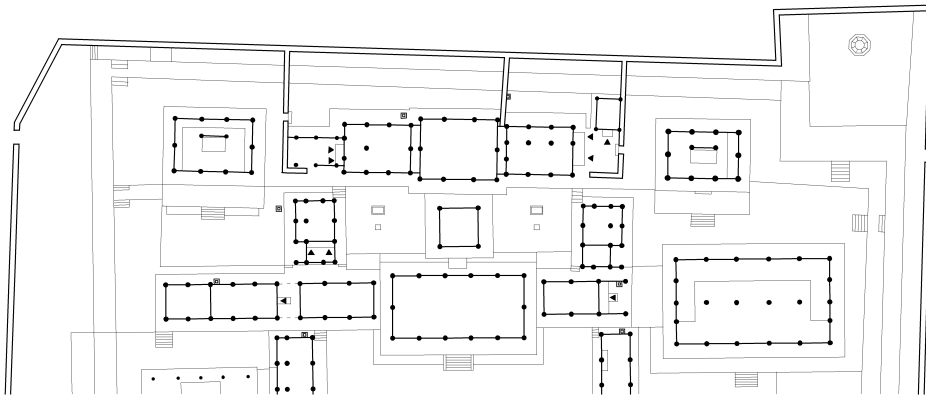
동·서방장에는 바닥 전면에 온돌이 설치되었고, 아궁이는 부뚜막이 없는 함실아궁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방장의 북측에는, 바닥에 방전이 깔리고 외부와는 창호로 구획된 퇴칸이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청과 동·서방 일곽은 동서의 담장으로 일차로 영역이 구획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동방장과 정청 사이의 후방 담장으로 인해 이 일곽의 후원이 동방장과 정청·서방장 영역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담장으로 구획된 후원의 석축에는 화계를 꾸며 방장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말 나옹의 중창 가람)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그림 3> 회암사 정청, 방장 일대 배치 추정 복원도(필자작성, ▲: 아궁이)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건물이 고려 말의 중창 당시에는 어떠한 기능을 위해 지어진 것인가를 밝히기 위한 전단계로, 나옹이 중창한 회암사의 가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宋·元代 선종사원의 주지 영역의 구성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4. 宋·元代 선종사원의 주지 영역

4-1. 宋代 선종사원의 寢堂과 方丈

五山十刹로 대표되는 南宋代의 선종사원은 중국에서 선종이 가장 흥성했던 시기의 완비된 가람으로 평가되며, 그 모습은 당시의 일본의 入宋 유학승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五山十刹圖』⁴⁷⁾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五山十刹圖』에는 사원을 구성하는 주요 전각들의 편액을 채집하여 전각의 종류별로 정리해 놓은 『諸山額集』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지의 영역을 이루는 전각으로 『前方丈』과 『內方丈』의 두 방장이 나온다. 여기서 내방장은 주지의 거처이며, 전방장은 宋·元代에 찬술된 각종 清規에 寢堂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물에 해당한다.⁴⁸⁾

47) 현재까지 『五山十刹圖』의 제작연대에 대해서는, 『五山十刹圖』에 수록된 『三八念誦回向文』에 적힌 『淳祐八(七)年丁未(1247)』에서 天童寺가 소실되는 寶祐4년(1256)년 사이로 보는 橫山秀哉(『支那禪刹圖式の内容』, 『禪の建築』, 彰國社, 東京, 1967., pp. 46-66.)의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으며, 작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청규에 기록된 침당의 기능을 보면, 평상시에는 주지가 수행승들을 모아놓고 小參⁴⁹⁾과 普說⁵⁰⁾과 같은 설법을 베풀고, 入室⁵¹⁾ 때에는 菩提達磨의 眞影을 걸어놓고 주지와 수행승들이 차례로 예를 올린 후 방장에 들었다. 그리고 주지를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거나, 주지가 知事⁵²⁾나 頭首⁵³⁾과 같은 役僧들을 불러 특별히 차를 공양하는(特爲茶) 곳으로도 사용되었다. 또 주지가 입적했을 때에는, 장례가 치러지는 전각의 하나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침당

48) 韓志晚, 『宋元時代の禪宗伽藍における寢堂について』(『駒澤大學禪研究所年報』第19號, 東京, 2008. 3.), pp. 49-65. 이 논문은 필자가 회암사지의 정청과 방장 유구를 해석하기 위한 전단계의 연구로, 宋·時代に 찬술된 청규의 내용을 중심으로 寢堂의 기능을 분석하여, 『五山十刹圖』, 『諸山額集』에 나오는 前方丈이 청규에 기록된 寢堂에 해당하는 건물이며, 元代에 침당의 기능이 법당과 방장으로 흡수되어 가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본 장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논문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寢堂이 곧 前方丈이라는 것에서부터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寢堂의 기능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 전체의 논지 전개상 생략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급적 간단하게 서술코자 하였다. 덧붙여 다음 절의 『元代 선종사원의 寢堂의 변화』에서 실례로 제시한 大龍翔集慶寺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49) 매월 5일(5, 10, 15, 20, 25, 30일) 아침에 주지가 法堂에 올라(上堂) 說法하는 것을 大參 혹은 早參이라 부르는 것에 대하여, 저녁에 寢堂에서 하는 설법을 小參 혹은 晚參이라 불렀다. 北宋代에 小參은 매월 3·8일(3, 8, 13, 18, 23, 28일)에 행해졌고, 수행승들의 사원내 생활에 대한 지도가 주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0) 普說 역시 주지가 행하는 설법의 일종으로, 北宋代에 眞淨克文(1025-1102)이 시작하였고, 南宋代 초에 看話禪을 진작시킨 大慧宗杲(1089-1163)에 의해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51) 주지가 수행승을 한 명씩 방장으로 불러들여 수행의 정도를 확인하고 가르침을 베푸는 것으로, 원래는 수시로 행해졌으나, 南宋代부터는 普說과 더불어 매월 3·8일에 행해지게 되었다. 駒澤大學內新版禪學大辭典 編纂所『新版禪學大辭典』, 大修館書店, 東京, 2003(1978).

52) 주지와 더불어 사원의 운영을 담당하는 役僧의 총칭으로 東班(東序)으로도 불렸으며, 都寺·監寺·副寺·維那·典座·直歲의 六知事가 있었다. 『新版禪學大辭典』

53) 주지를 도와 수행승들의 수행을 지도하는 役僧의 총칭으로 西班(西序)으로도 불렸으며, 首座·書記·藏主·知客·浴主·知殿의 六頭首가 있었다. 『新版禪學大辭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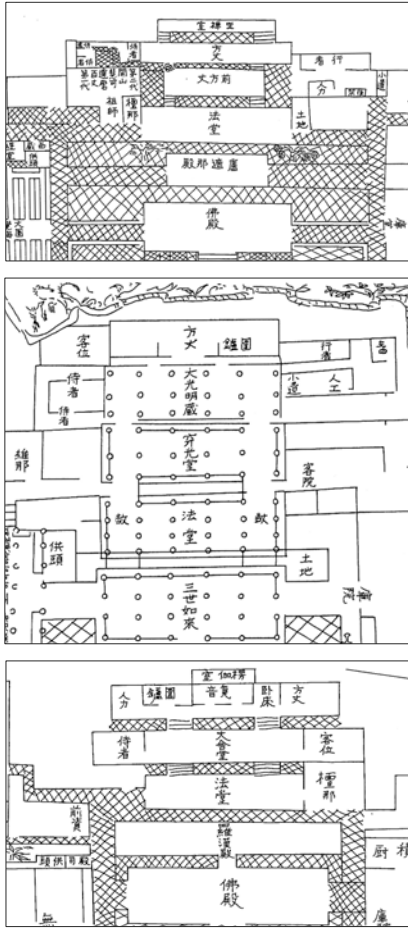
에 대하여 일본 江戸時代の 임제종 승려 無著道忠(1653-1745)이 저술한 선종 용어사전격인 『禪林象器箋』(第二類『殿堂門·寢堂』條)에는 「蓋寢堂者, 住持講禮之處」라 하여 주지의 講禮, 즉 講說과 行禮를 위한 장소라 하였다.

다음으로 『五山十刹圖』에 수록되어 있는 가람배치도에서 전방장과 내방장, 즉 침당과 방장의 위치를 보면, 중심축선상의 불전, 법당의 뒤쪽에 전후로 배치되어 있는데, 靈隱寺의 「前方丈」, 天童寺의 「大光明藏」과 「寂光堂」, 그리고 萬年寺의 「大舍堂」이 각각 전방장 즉 침당에 해당하며 그 뒤에 방장이 위치하고 있다(그림4).

한편 침당에서 소침이나 보설과 같이 수행승 전원이 참석하는 법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법당에 준하는 정도의 규모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五山十刹圖』의 가람배치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또 방장(天童寺) 혹은 침당(萬年寺)에 客位가 인접해 있는 것이 보이는데, 객위는 신분이 높은 빈객이나 다른 사원의 주지가 방문했을 때 머무는 곳이다.⁵⁴⁾

이처럼 宋代 선종사원에서 주지의 영역은 주지의 거처인 방장과 그 전면에 주지 講禮의 공간인 침당이 별도로 구성되고, 이들에 연결하여 객위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元代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주지 영역의 구성에 변화가 일어난다.

54) 『新版禪學大辭典』. 또한 이러한 客位の 기능과 관련된 淸規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禪林備用淸規』(1311년, 澤山弑威)卷之五『官員相訪』條: 山門挂牌報衆, 探候迎接. 將及門, 鳴樓鐘, 衆接入大殿拈香. 方丈獻茶湯了, 送歸客位.; 『勅修百丈淸規』(1338년, 東陽德輝)卷第二『迎侍尊宿』條: 尊宿相訪. 須預掛接尊宿牌, 鳴鐘集衆門迎. 彼若尚簡, 則潛入寺. 住持必於寢堂具香燭相接. ……(이하, 寢堂에서의 접객 절차 생략)…… 湯罷. 兩序勤舊同送客位. 客頭令備輶. 이에 대해, 보통의 行脚僧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든 숙소를 且過寮라 하며(『新版禪學大辭典』), 이색의 『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 나오는 東客室과 西客室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4> 『五山十刹圖』의 가람배치도(부분):
 靈隱寺(上), 天童寺(中), 萬年寺(下)
 (자료: 關口欣也, 『五山と禪院』)

4-2. 元代 선종사원의 寢堂의 변화

元代에 찬술된 청규들을 보면, 당시 선종사원에서 침당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보인다. 그리고 그 변화가 소참이나 보설과 같이 주지가 수행승 전원을 모아놓고 행하는 법회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小參은) 중승의 많고 적음을 보아
 혹은 寢堂에서, 혹은 法堂에서 한다.⁵⁵⁾

55) 『勅修百丈清規』券第二『小參』條: 看衆多少, 或就寢
 건축역사연구 제17권 6호 통권61호 2008년 12월

(b) 무릇 普說 때에는 侍者が 方丈客頭로 하여금 僧堂과 衆寮 그리고 모든 寮
 舍에 普說牌를 걸도록 하고, 寢堂 혹은
 法堂에 鋪設한다.⁵⁶⁾

이를 보면 南宋代까지 전적으로 침당에서 행해졌던 소참과 보설이 元代에는 법당에서도 행해지고 있는데, 사료(a)에 의하면 승려들의 수가 많은 경우 법당에서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종래 침당의 기능 중에서 소참과 보설 등 승려 전원이 참석하는 법회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元代에 들어와서는 법당으로 흡수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더 이상 南宋代와 같은 규모의 침당을 만들지 않게 되거나, 혹은 독립된 침당을 건립해야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元代의 청규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1330년(至順1) 金陵(지금의 江蘇省 南京)에 건립된 大龍翔集慶寺이다.

大龍翔集慶寺는 元 文宗의 명으로, 金陵 성안에 있던 文宗의 潛邸에 건립된 선종사원이다. 당시 杭州의 中天竺寺에 住持로 있던 笑隱大訥(1284-1344)이 開山祖에 임명되었고,⁵⁷⁾ 사원이 완공되자 文宗은 寺格을 五山보다 높혀 『五山之上』으로 정했다.⁵⁹⁾ 이처럼 大

堂, 或就法堂.

56) 『禪林備用清規』券之二『普說』條: 凡普說時, 侍者令方丈客頭, 掛普說牌, 於僧堂・衆寮前并諸寮, 鋪設寢堂或法堂. 또한 같은 내용으로 『勅修百丈清規』(券第二『普說』條)에는 『凡普說時, 侍者令客頭行者, 掛普說牌報衆, 鋪設寢堂或法堂.』이라 하였다.

57) 虞集, 『大龍翔集慶寺碑文』(『至正金陵新志』券十一下『祠祀志』二『寺院』條). 明 1607년(萬曆35)에 간행된 『金陵梵刹志』(券十六『鳳山天界寺』條)에 의하면, 大龍翔集慶寺는 明 초 1338년(洪武21)에 소실된 후 성밖 남쪽으로 터를 옮겨 재건되었으며, 절 이름도 天界寺로 바뀌었다. 절 이름 중의 集慶은 文宗이 즉위 후에 이곳의 지명을 集慶路로 바꾼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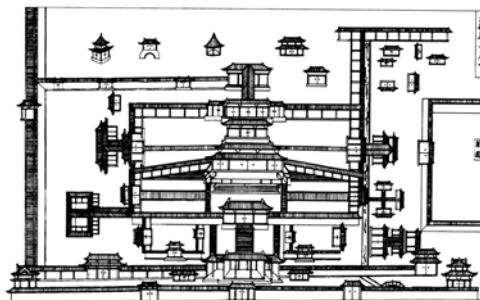
58) 『至正金陵新志』에 실린 그림을 張十慶이 모사한 것이다.

59) 野口善敬, 『元代禪宗史研究』(禪文化研究所, 京都,

龍翔集慶寺는 南宋代의 五산에 비견되는 元代를 대표하는 선종사원이다.⁶⁰⁾ 元代 말에 편집된 『至正金陵新志』⁶¹⁾에는 「大龍翔集慶寺圖」(卷一)와 함께 文宗의 명으로 虞集이 찬술한 「大龍翔集慶寺碑文」(券十一下「祠寺志」二「寺院」條)이 실려 있어 당시 가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5).

먼저, 虞集의 비문에 의하면 前殿인 大覺殿과 後殿인 五方調御殿의 두 불전, 僧堂인 禪宗海會堂, 方丈인 傳法正宗堂, 法堂인 雷音堂, 經藏인 龍藏, 그리고 香積, 鍾·鼓樓 등이 있었으며, 주위를 垣과 廡로 두르고 三門을 내었다고 했다.⁶²⁾

다음으로 虞集의 비문과 「大龍翔集慶寺圖」(그림5)를 대조해서 보면, 가람 중심축선상의 전방으로는 동서로 담장과 화랑에 접한 3동의 문이 전후로 놓이고, 그 뒤로 회랑 안쪽에 중층의 전전(大覺殿)과 단층의 후전(五方調御殿)이 있다. 후전 뒤에는 동서에 부속건물과 회랑이 연결한 법당이 있고,⁶³⁾ 법당에서 후방



<그림 5> 大龍翔集慶寺圖⁵⁸⁾

(자료: 『中國古代建築史』第四卷: 元·明建築)

으로 穿廊이 뻗어 방장에 이어져 있다. 후전 서쪽에는 회랑에 접하여 外堂·內堂·明樓·明堂를 갖춘 승당⁶⁴⁾이 있고, 이와 대칭되는 위치의 동쪽 회랑에 접해 있는 건축군은 香積廚를 갖춘 庫院⁶⁵⁾이다. 그 밖에 방장 뒤로는 각종의 樓와 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며, 방장 서쪽으로 담장을 길게 쌓아 영역을 한정하였다. 또 승당 남쪽에 두 개의 중정을 구성하여 日字形 평면을 이룬 건물은 衆寮⁶⁶⁾로 보인다.

2005.), p. 301-303.

60) 또한 東陽德輝가 찬술한 『勅修百丈清規』의 校正이 大龍翔集慶寺에서 이루어졌는데, 勅命을 받아 이를 주관했던 승려가 개산조 笑隱大訶였다. 『勅修百丈清規』券第八「勅修百丈規叙」條: 特勅百丈山大智壽聖禪寺住持德輝, 重輯其爲書. 仍勅大龍翔集慶寺住持大訶, 選有學業沙門, 共校正之.

61) 『宋元方志叢刊』6, 中華書局, 北京, 1990.

62) 虞集, 「大龍翔集慶寺碑文」: 其大殿曰大覺之殿. 後殿曰五方調御之殿. 居僧以致其道者, 曰禪宗海會之堂. 居師以尊其道者, 曰傳法正宗之堂. 師弟子之所警發辯證者, 曰雷音之堂. 法寶之儲曰龍藏. 治食之處曰香積. 鼓鐘之宣, 金穀之委, 各有其所. 繚以垣廡, 關之三門. 而佛·菩薩·天人之像設, 纓蓋·床座嚴飾之具, 華燈音樂之奉, 與凡所宜.

63) 법당의 동·서에 부속된 건물은 각각 伽藍殿과 祖師堂으로 보인다. 伽藍殿은 土地堂이라고도 하며 伽藍의 수호신을 봉안한 전각이고, 祖師堂은 선종의 初祖 達磨, 六祖 慧能, 百丈懷海, 開山祖 그리고 역대 주지의 眞影을 봉안하는 전각이다. 이렇게 伽藍殿과 祖師堂을 법당의 동서에 배치하는 것은, 宋·元代 선종사원의 가람배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64) 宋·元代 선종사원의 僧堂은 수행승이 좌선·식사·취침을 하는 공간인 內堂과, 知事와 頭首의 役僧들이 좌선과 식사를 하는 外堂, 이 둘을 연결하는 明樓, 그리고 승당 전체를 두르는 經行廊으로 구성되며, 內堂과 外堂사이의 明樓 양쪽의 마당을 明堂이라고 한다. 橫山秀哉, 「僧堂と禪堂」(앞의 책), pp. 174-190.

65) 『五山十刹圖』의 가람배치도에 그려진 庫院은, 香積廚 즉 부엌과 知事寮, 그리고 창고 등이 부속되어 건축적으로는 3-4동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었고, 元代에도 같은 양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南宋代 선종사원의 庫院의 기능과 건축구성에 대해서는 永井規男, 「中世五山における庫院とその変容」(『建築史學』第38號, 建築史學會, 東京, 2002年3月), pp. 2-31. 참조.

66) 宋·元代 선종사원의 衆寮는, 수행승들이 승당에서의 좌선·식사·취침 이외의 시간에 차를 마시거나 經典, 語錄을 읽는 건물이며, 南宋代부터는 계율에서 금지된 저녁식사[藥石]도 중료에서 하게 되었다. 승당과 마찬가지로 각 승려들에게는 지정된 자리가 있으나, 知事와 頭首와 같은 役僧들은 각자의 요사가 있기 때문에, 중료에는 따로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把針處라고 하는 세탁이나 마느질, 이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속되어 있었으며, 수행승 전원을 수용하는 대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채광과 환기를 위해 건물 안에 중정을 만들기도 하였다. 橫山秀哉, 「衆寮と學寮」(앞의

이처럼 元代에 창건된 大龍翔集慶寺에는 법당과 방장 사이에 침당을 따로 건립하지 않고 법당 뒤에 바로 방장이 위치하였는데, 이것은 元代의 청규에 나타난 침당 기능의 변화와 상통한다. 그러나 元代의 청규에는 소참과 보설 이외에, 주지의 접객이나 장례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침당은 宋代와 다름없이 기술되고 있어 그 존재 자체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元代의 선종 사원에서는 기존의 침당이 가지고 있던 기능 중에서 소참과 보설과 같은 수행승 전원이 참석하는 법회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법당으로, 그 밖의 기능들은 방장으로 각각 흡수되어, 방장 건물 일부에 침당 공간이 구성되는 형식으로 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⁶⁷⁾

다음으로, 주지 장례식과 관련된 침당의 사용방식에 대해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고찰할 고려 말 회암사의 정청·방장의 기능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청규에 기록된 주지 장례식의 절차는 宋代와 元代가 약간 다른데⁶⁸⁾, 元代에 들어와 절

책), pp. 191-200.

67) 張十慶은 元代의 선종사원은 대체로 南宋代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가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土地堂과 祖師堂의 위치에 대해, 일본의 『建長寺指圖』(1331)에 근거하여 南宋代까지는 土地堂과 祖師堂이 법당의 동서에 연결해 있었으나, 元代에 들어와 법당보다 불전이 증시되면서 불전의 동서로 이동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宋代에는 藏殿에 看經堂과 經藏 시설이 부속되어 있었으나, 元代에는 衆寮에서 看經이 행해졌고, 藏殿은 단지 경전을 보관하는 經藏의 기능만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이상 張十慶, 『漢地佛教建築』, 『中國古代建築史』第四卷: 元·明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北京, 2001.), pp. 300-308.). 그러나, 元代 大龍翔集慶寺의 경우 土地堂과 祖師堂은 법당의 동서에 이 연결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看經의 기능이 藏殿에서 衆寮로 옮겨간 것은 이미 北宋代부터 나타나는 변화라는 점에서 張十慶의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방장과 침당의 변화는 간과하고 있다.

68) 北宋과 南宋 사이의 변화는 없다. 宋·元代 선종사 건축역사연구 제17권 6호 통권61호 2008년 12월

차가 다소 복잡해졌고, 그에 따라 침당의 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여기서는 장례식 전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침당을 중심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宋代에는 茶毗를 마친 후 바로 유골을 묻고 탑을 세운다. 그리고 침당에 주지의 진영을 걸어두고 아침·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粥(아침공양)과 齋(점심공양)을 올리며, 신임 주지가 들어오면 이를 그치고 진영을 祖師堂으로 옮긴다. 그런데 元代에는 다비를 마친 후 유골을 수습하여 다시 침당에 안치하고 진영을 걸어, 粥·齋와 차를 올리고 經을 읊는다[諷經]. 이렇게 열흘에서 보름 동안 한 후에, 유골을 묻고 탑을 세운다. 그리고 진영은 다시 침당에 걸고 차를 올리고 經을 읊으며 [諷經], 신임 주지가 들어오면 진영을 조사당으로 옮긴다.

5. 고려 말 회암사의 주지 영역: 정청과 동·서방장

5-1. 정청과 동·서방장의 기능

『懶翁和尚行狀』에는 나옹이 입적한 후에 치러진 장례식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회암사와 元代 선종사원과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

(c) 辰時에 이르러 고요히 입적하니 (1376년) 5월 15일이였다. ……茶毗를 마쳤는데, 머리뼈 다섯 조각과 이 40개가 모두 타지 않아 香水로 씻었다. ……門인들이 靈骨舍利를 받들어 배를 타고 檜巖寺로 돌아갔다. ……(5월) 29일 檜巖寺에 이르러 (靈骨을) 寢堂에 안치하였다. 8월 15일 절 북쪽 기슭에 浮圖를 세웠다.⁶⁹⁾

원에서 住持 장례식의 절차는 北宋代의 『禪苑清規』券七『尊宿遷化』條, 南宋代의 『叢林校定清規總要』券下『十四, 當代住持涅槃』條, 元代의 『禪林備用清規』券之九, 『勸修百丈清規』券第三『遷化』條에 각각 기술되어 있다.

이 내용은 나옹이 회암사 중창을 마치고 밀양의 영원사로 유배되어 가던 중, 여주의 신록사에서 입적한 후에 치러진 장례 절차의 일부이다. 이에 의하면 나옹의 문도들은 신록사에서 다비를 마친 후에, 수습한 나옹의 유골을 가지고 회암사로 돌아와 부도를 세울 때까지 『寢堂』에 안치했다고 한다. 이는 앞서 소개한 元代의 淸規에 기록된 주지의 장례 절차와 일치하며, 또한 나옹이 중창한 회암사에도 침당에 해당하는 건물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옹이 유학을 통하여 경험했던 元代 선종사원의 가람제도와 청규⁷⁰⁾를 회암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의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침당이라는 명칭은 이색의 『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는 보이지 않는데, 『懶翁和尚行狀』에 기록된 침당이란 당시 회암사의 어느 건물에 해당하는 것인가? 앞서 고찰한 宋·元代 선종사원에서 주지 講禮의 공간이라는 침당의 기능, 그리고 元代에는 침당이 독립된 건물로 지어지지 않고 방장 건물의 일부로 흡수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동·서방장 사이의 정청 부분이 바로 침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정청(정면3칸, 측

면2칸)이 설법당(정면5칸, 측면2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규모로 축소되어 수행승 전원이 운집하는 법회의 개설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내부 공간에 기둥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그 외의 각종 儀式이나 행사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동·서방장의 기능이 문제가 되는데, 먼저 방장이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주지의 거처였음은 분명하나, 두 방장이 같은 기능을 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宋·元代의 선종사원에서도 동·서 두 방장의 존재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여기서 참고가 되는 것이 중앙에 위치한 침당의 기능과, 방장지 후방의 담장 유구들이다(그림3).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 담장들은 먼저 가람 내에서 주지의 영역을 구획하고, 그 속에서 다시 동방장과 서방장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동방장과 서방장 영역을 구분하는 담장이 정청과 동방장 사이에 있어, 결과적으로 정청은 서방장과 같은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침당의 기능을 하는 정청과 같은 영역으로 구획된 서방장을 주지의 거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동방장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서 『五山十刹圖』의 가람배치도에서 본 바와 같이 방장 혹은 침당에 접하여 客位, 즉 다른 사원의 주지나 높은 신분의 빈객이 방문하였을 때 머무는 공간이 갖추어져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회암사의 동방장이 객위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서방장과 동방장의 기능은, 그 전면에 위치한 7단지의 侍者寮, 入室寮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방장 앞의 입실료는 서방장 앞의 시자료와 더불어 侍者の 거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자란 선종사원에서 주지의 시중을 드는 역할을 맡은 승려를 말한

69) 『懶翁和尚行狀』: 到辰時, 寂然而逝, 五月十五日也. ……茶毗已訖, 頭骨五片牙齒四十皆不燒, 以香水洗之. ……門人陪靈骨舍利, 將舟還檜巖. ……二十九日, 到檜巖, 安于寢堂. 八月十五日, 樹浮圖於寺之北崖

70) 중국으로부터 청규의 도입과 그 실행은 이미 나옹 이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었다. 먼저 1254년(高宗41) 『禪苑淸規』가 高麗分司大藏都監에서 간행되었고, 그 이후로는 圓明國師 冲鑑(1274-1338)이 1304년(忠烈王30) 元에서 귀국하여 『禪門淸規』를 채택하여 실행했다고 한다. 또한 1346년(忠穆王2)에 入元한 太古普愚(1301-82)가 1348년에 『勅修淸規』(『勅修百丈淸規』)를 가지고 귀국한 후 恭愍王의 명으로 간행하였고, 1356년(恭愍王5)에는 禪門에서 『勅修淸規』를 실행할 것을 왕에게 건의하였다. 이상, 崔法慧 역주, 『高麗板 禪苑淸規 譯註』(伽山佛敎文化研究院出版部, 2002(2001).), p. 10.; 許興植, 『高麗佛敎史 研究』, p. 482.; 姜好鮮, 『14세기 전반기 麗·元 佛敎交流와 臨濟宗』(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p. 52.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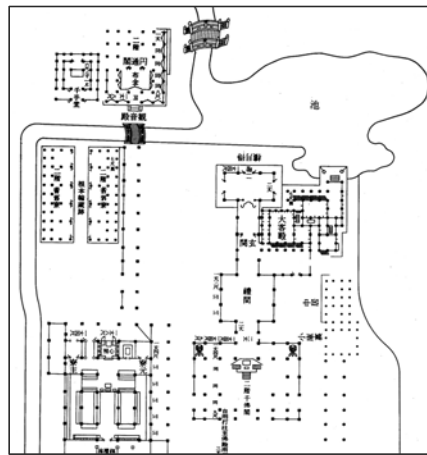
다.⁷¹⁾ 중국 北宋代의 선종사원에서는 內侍者와 外侍者의 두 시자가 있어, 내시자는 주지의 衣鉢이나 방장의 각종 法具를 관리하며, 외시자는 접객이나 주지와 수행승 사이의 연락 그리고 각종 법회 때 주지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北宋代의 내·외시자는 南宋代를 지나 元代에 이르면 더욱 세분화 되어 燒香·書狀·請客·湯藥·衣鉢侍者의 다섯 시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湯藥·衣鉢侍者가 내시자, 燒香·書狀·請客이 외시자에 해당한다.⁷²⁾ 즉, 나옹이 중창한 회암사의 방장 영역에는, 주지의 시중을 드는 내시자의 묘사인 시자료가 서방장의 전면, 접객의 의무가 있는 외시자의 묘사인 입실료가 동방장의 전면에서 각각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5-2. 건축형태

나옹이 중창한 회암사의 정청과 동·서방장이 이루는 건축군은, 발굴조사된 유구의 상황으로 보아, 동일한 기단 위에 지어져 있으나 각 부분은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었고 지붕도 중앙의 정청 부분이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형태만 놓고 보면 중국 고대 궁궐이나 寺廟, 혹은 주택건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회암사의 정청과 동·서방장은 선종사원의 방장제도와 더불어 건축 형태까지 元에서 도입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장에 온돌이 설치된 것을

보면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방장(서방장)과 객위(동방장)는 주지와 빈객의 거처로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에는 고려의 고유한 주거 문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형식의 가람을 도입하더라도, 그 중에서 방장과 같이 거처나 접객의 용도로 사용되는 전각에는, 그 지역의 전통적인 주택건축의 요소를 도입하여 변형시킨 사례가, 고려 말 회암사의 중창과 비슷한 시기의 일본에서도 나타나, 회암사지의 유구 해석에 좋은 참고가 된다.



<그림 6> 『建長寺指圖』(부분)
(자료: 關口欣也, 『五山と禪院』)

유명한 『建長寺指圖』는 1331년(元弘1) 무렵 鎌倉(카마쿠라) 建長寺(켄초지)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전체의 가람 구성에서 불전이나 법당 등 주요 전각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南宋代 강남지역 선종사원의 체도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³⁾ 여기서 住持의 영역을 보면, 먼저 법당 뒤의 중심 축선상에 禮間⁷⁴⁾ 즉 침당에 해당하는 건물이

71) 『新版禪學大辭典』

72) 鏡島元隆·佐藤達玄·小坂機融 譯註, 『譯註禪苑清規』(曹洞宗宗務廳, 東京, 1992(1972)), p. 163. 北宋의 『禪苑清規』(卷四『堂頭侍者』條)에 기록된 內侍者의 역할은 주지의 衣鉢과 文書 및 방장 내의 公用物을 관리하며, 또한 茶湯, 紙筆, 冬夏의 衣類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外侍者의 역할은 賓客의 접대, 書信의 회답, 新到의 相看, 入室, 念誦, 放參, 結夏의 臘次牌 등을 관장하는 것이었다. 元代 선종사원의 다섯 시자와 역할은 『勅修百丈清規』(卷第四)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僧堂에 안치된 聖僧像의 관리를 맡은 聖僧侍者가 있다.

73) 太田博太郎, 『社寺建築の研究-日本建築史論集III-』(岩波書店, 東京, 1986.), pp. 186-187.; 關口欣也, 『五山と禪院』(小學館, 東京, 1991.), pp. 157-159.

74) 服部文雄은 이 禮間이 南宋 『五山十刹圖』에 기록된

있고, 그 뒤로 玄關·得月樓·大客殿 등으로 이루어진 방장 일곽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뒤로는 연못을 파고 정원을 조성하였다(그림 6). 여기서 大客殿은 빈객이 머무는 객위에 해당하고, 그 동쪽에 연결된 부분이 주지가 거처하는 방장이다. 이것을 구성요소로 보면 침당과 객위 그리고 방장으로 이루어진 南宋 代 선종사원의 주지 영역의 구성방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에 묘사된 大客殿과 그 동쪽에 연결된 방장의 형태가, 당시 일본의 귀족주택 형식인 寢殿造(신덴즈쿠리)풍으로 되어 있다는 점⁷⁵⁾이 주목된다. 이것은 특히, 建長寺의 초창(1249)은 물론 이후 두 차례의 소실과 재건 과정을 거쳐 『建長寺指圖』가 제작된 1331년까지 가람의 조영이 모두 중국에서 건너온 선승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⁷⁶⁾에서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이는 당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건축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새로운 종교적 의례를 행하는 건물은 큰 변화 없이 수용 되는 반면,

방장과 같이 거처의 기능을 하는 건축일 경우 일본의 고유한 주거건축의 형태로 변화시켜 일본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여 고려의 회암사를 보면, 정청과 동·서의 방장이 이루는 건축군과 같은 형태는, 현재까지 확인된 유구가 편중되어 있기는 하나 고려시대 이전의 유구에서부터 종종 확인된다. 먼저 고구려 安鶴宮址, 신라 雁鴨池 東宮址, 고려 正宮址의 건물지 등 궁궐건축 유구나, 고려 중기 1122년(睿宗 17)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惠陰院址의 추정 行宮⁷⁷⁾ 正殿址,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까지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 울진 多施院址의 본채 유구⁷⁸⁾, 客舍의 본채⁷⁹⁾ 등 역원이나 객사 건축에서 유례가 많이 보인다. 그리고 사원건축의 유구로는 통일신라 感恩寺址의 강당지, 聖住寺址 강당지, 고려 佛日寺址의 西區 건물지, 興德寺址의 추정 강당지 등이 있다. 또 주택의 경우 현존하는 유구가 극히 드물지만, 고려 말 상류주택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아산의 맹씨행단⁸⁰⁾은 지붕 형태와 구조에서 차이는 있

前方丈, 즉 寢堂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日本の美術』第161號: 僧房·方丈·庫裏, 至文堂, 東京, 1979., pp. 58-60.),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75) 일본의 연구자들이 이 건물을 寢殿造풍으로 보는 근거는, 건물 둘레의 개구부가 寢殿造 주택에 흔히 사용된 葺(관자에 격자살을 낸 들문)로 되어있는 점, 건물의 후면 일부가 역시 寢殿造 주택의 釣殿과 같이 연못에 돌출해 있는 점 등이다. 服部文雄, 위의 책, p. 58.; 藤井惠介, 『II中世, 2.1 寺院建築』(『日本建築史-新建築學大系2-』, 彰國社, 東京, 1999.), p. 197.

76) 鎌倉 建長寺는 1249년(建長1) 鎌倉幕府의 第五代 執權 北條時賴(재직 1246-56)이 1246년(寬元4) 南宋에서 건너온 禪僧 蘭溪道隆(1213-1278)를 開山祖로 하여 草創되었다. 이후 『建長寺指圖』가 제작되던 1331년까지 1293년(永仁1)과 1315년(正和4)에 각각 화재로 인한 소실과 재건의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 재건을 담당했던 주지는 一山一寧(1247-1317), 東里德慧(?-1318), 東明慧日(1272-1340), 淸拙正澄(1274-1339) 등으로, 이들은 모두 중국의 강남지역 출신 선승들이었다. 關口欣也, 위의 책, pp. 150-153.; 『扶桑五山記』三『建長寺·住持位次』.

77) 고려 중기의 惠陰院은 金富軾의 『惠陰寺新創記』(『東文選』卷之六十四『記』)에 의해, 寺院과 驛院 그리고 『임금께서 南巡하신다면 행여 한 번이라도 이곳에 머무르실 일이 없지 않으리니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드디어 따로 別院 한 구역을 지었다(又謂, 若乘輿南巡, 則不可知其不一幸而駐蹕於此, 宜其有以待之, 遂營別院一區)』고 한 바와 같이 行宮도 別院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발굴조사 결과, 惠陰院址 최후방의 건물지 일곽이 行宮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유적 전체가 발굴조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유동적이다. 서영일·김호준, 『IX종합고찰·1유구』, 『坡州 惠陰院址 發掘調査 報告書-1次~4次(I)-』, 檀國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2006.), pp. 337-343.

78) 김찬영, 『蔚珍 외선미리 발굴 건물지에 관한 연구』, 『建築歷史研究』通卷51號, 韓國建築歷史學會, 2007. 4., pp. 79-98.

79) 김동욱은 正廳과 좌우 翼軒으로 구성된 客舍 본채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았다. 김동욱, 『객사의 형태와 구조적 특성』(『안성객사 해체·중건공사보고서』, 안성시, 2000.), p. 43.

으나, 중앙에 마루칸을 만들고 좌우에 온돌방이 연결된 평면 구성의 방식에 있어서는 회암사지의 정청, 동·서방장 유구와 상통한다.

즉 이러한 건축형태는 고려 후기의 원간섭기 이전부터 여러 종류의 건축에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⁸⁰⁾ 중앙부가 행사나 의례용, 양측의 익실은 거처로 사용되었으며, 익실에 온돌을 들임으로서 고려의 고유한 건축형태로 정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형태가 고려 말 회암사의 정청, 동·서방장에 채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正廳」이라는 명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청은 일반적으로 궁궐이나 관아에서 중심 되는 건물이나 공간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고,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회암사지의 정청 유구를 왕의 거처로 보게 되는 선입관을 낳게 하였다. 그러나 문헌 사료에 기록된 정청이 모두 왕이나 관아와 관련된 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시대의 문헌을 보면, 당시 상류주택에는 접객이나 연회 등을 행하는 堂이라 불린 건물이 있고, 堂의 내부가 室과 廳(혹은 廳事)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 있는데, 여기서 청은 바닥에 전돌 혹은 마루가 깔린 行禮의 공간, 실은 일상의 기거를 위한 방을 의미한다.⁸²⁾ 또 조선시대의 사례이기는 하나, 1469년(睿宗1) 경기도 양주에 世祖 光陵의 능침사찰로 창건된 奉先寺에는 正廳 2칸과 房 1칸으로 된 興福寮라는 건물이 있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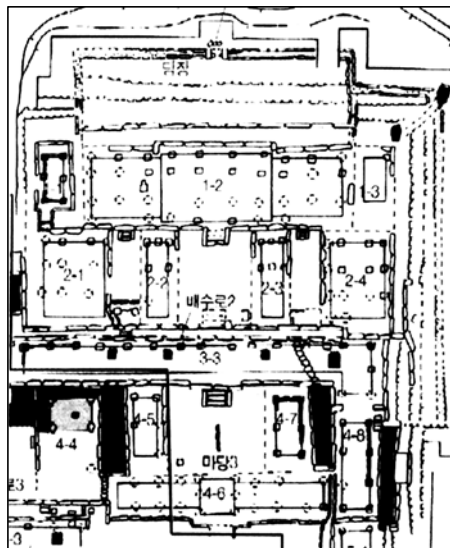
80) 충남 아산의 맹씨행단은 15세기 중엽 이전에 지어진 살림집으로 온돌방과 마루가 결합된 고려말 조선초기 주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김동욱, 앞의 책(2007), p. 175.

81) 김동욱은 이러한 형태가 고려 말 또는 조선 초기 목조건물의 보편적인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동욱, 앞의 보고서(2000.), p. 42.

82) 李楨美, 『高麗時代 住居建築에 관한 文獻研究』(경주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pp. 173-174.

데,⁸³⁾ 여기서도 정청은 마루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 기록된 正廳은, 이곳이 주지 講禮의 공간인 침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바닥에 전돌이 깔린 行禮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사원과 역원 그리고 행궁의 복합시설로 추정되는 혜음원지의 추정 행궁지와 형태적 유사성으로 인해, 고려시대 회암사의 정청, 동·서방장 역시 幸行한 왕이 머물기 위한 시설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형태의 건물이 다양한 유형의 건축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혜음원지의 추정 행궁지는 배치의 축을 타영역과 달리 하고 전방에 다수의



<그림 7> 혜음원지의 추정 행궁지 발굴도면 (도면: 『파주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 2006.)

83) 金守濶, 『奉先寺記』(『拭疣集』卷之二『記類』): 佛供殿六間, 名曰香積堂. 正廳二間, 房一間, 名曰興福寮. 正廚二間并五間辦都房, 前後有退四間, 名曰轉熟堂. 庖廚之所, 有樓庫地庫并十六間. 傾廊, 造餅廳·湯子房·洗閣并十五間. 興福寮 앞뒤로 香積堂, 轉熟堂, 造餅廳·湯子房·洗閣 등이 나열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興福寮 역시 供需間 일곽[庫院]을 구성하는 건물의 하나로 생각된다.

부속 건물을 배치하고 회랑과 문을 두 겹으로 둘러 완벽하게 구획된 별원을 이루는⁸⁴⁾ 반면(그림7), 회암사의 정청, 동·서방장은 동·서로는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으나, 전방으로는 회랑 등에 의한 영역의 구획이 없이 전체 가람배치에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고려 말의 회암사에서 行幸한 왕이 머물렀던 시설은, 사원 근처에 혜음원과 같이 별원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나 혹은, 객위에 해당하는 동방장이 임시로 왕의 거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연구나 자료, 유구의 발굴과 조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결론

문헌사료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 연혁과 발굴유구의 상황으로 보아, 회암사는 고려 말에 나옹이 중창한 이후 조선시대에 왜란과 호란으로 폐사될 때까지 왕실의 지원에 의한 수리가 수차례 있었으나, 가람 전체가 일시에 소실되어 재건되거나 가람의 구조가 바뀌는 정도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굴된 가람의 유구는 고려 말 중창 당시의 모습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청과 동·서방장지에 서도 확인이 된다.

고려 말의 회암사 중창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국의 元代 선종사원은, 南宋代의 완비된 모습의 선종사원에서 주지의 방장 영역이 한 단계 변화된 모습이었다. 즉, 南宋代 선종사원의 방장 영역은, 법당 뒤에 講禮의 공간인 침당과 주지의 거처인 방장이 전후로 독립되어

있었고, 이에 인접하여 신분이 높은 빈객이 머무는 객위가 있었으나, 元代에 들어오면 침당이 별도로 건립되지 않고 방장 건물 속의 한 공간으로 흡수되었다.

고려 말에 중창된 회암사의 정청 및 동·서방장은, 元代 선종사원의 방장제도를 따라 지은 것으로, 정청은 침당, 서방장은 주지의 거처, 동방장은 객위에 각각 해당한다. 그러나, 바닥에 방전을 깔 정청의 동·서에 온돌방을 인접하여 지은 건축 형태는, 당시까지 고려에서 행례와 거처의 기능을 갖춘 건물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유형으로, 고려의 고유한 건축형태였다.

즉, 고려 말에 나옹이 중창한 회암사는, 나옹이 10년에 걸친 元 유학을 통하여 경험했던 元代 선종사원의 가람제도를 도입하여, 고려 건축문화의 토대 위에서 재구성하여 구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高麗史』
2. 『朝鮮王朝實錄』
3. 『新增東國輿地勝覽』
4. 『補閑集』
5. 『牧隱文藁』
6. 『東文選』
7. 『拭疣集』
8. 『葵窓遺稿』
9. 『懶翁和尚行狀』
10. 『懶菴雜著』
11. 김성구, 『옛기와』, 대원사, 1992.
12. 허홍식, 『고려불교사연구』, 중판, 일조각, 1997.
13. 허홍식,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 1판, 일조각, 1997.
14.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고려편,

84) 이러한 배치는 울진의 多施院址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혜음원지의 추정 행궁지는 행궁보다는 고려 말 조선 초 역원 건축의 전형적인 사례로 생각된다.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1997).
15. 崔法慧, 『高麗板禪苑清規譯註』,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2(2001).
 16.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개정판, 2007.
 17. 새한건축문화연구소, 『회암사지 현황조사-1차조사보고서-』, 양주군, 1985.
 18. 『안성객사 해체·중건공사보고서』, 안성시, 2000.
 19. 『회암사I-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20. 『회암사II-7·8단지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21. 『양주회암사지 4차 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11-』,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22.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1차~4차(I)-』,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23. 최완수, 『회암사지 사리탑의 건립연기』 (『미술사학연구』87권, 한국미술사학회, 1967.), pp. 343-345.
 24. 최성봉, 『회암사의 연혁과 그 사지 조사-가람배치를 중심으로-』, 『불교학보』9,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소, 1972. 10., pp. 159-201.
 25. 김홍식, 『양주 회암사지의 전각배치에 대한 연구』, 『문화재』24호, 문화재관리국, 1991.
 26. 김찬영, 『울진 외선미리 발굴 건물지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통권5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7. 4., pp. 79-98.
 27. 최성봉, 『회암사지의 조사연구-가람배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58.
 28. 강호선, 『14세기 전반기 러·원 불교교류와 임제종』,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29. 이정미, 『고려시대 주거건축에 관한 문헌 연구』(청주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30. 『景德傳燈錄』
 31. 『禪苑清規』
 32. 『叢林校定清規總要』
 33. 『禪林備用清規』
 34. 『勅修百丈清規』
 35. 『勅建淨慈寺志』
 36. 『至正金陵新志』(『宋元方志叢刊』6, 中華書局, 北京, 1990.)
 37. 張十慶, 『五山十刹圖與南宋江南禪寺』, 東南大學出版社, 南京, 2000.
 38. 『中國古代建築史』第四卷: 元·明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北京, 2001.
 39. 『五山十刹圖』(大乘寺本)
 40. 『扶桑五山記』
 41. 駒澤大學內新版禪學大辭典編纂所『新版禪學大辭典』, 大修館書店, 東京, 2003(1978).
 42. 橫山秀哉, 『禪の建築』, 彰國社, 東京, 1967.
 43. 服部文雄, 『日本の美術』第161號: 僧房·方丈·庫裏, 至文堂, 東京, 1979.
 44. 杉山信三, 『韓國の中世建築』, 相模書房, 東京, 1984.
 45. 太田博太郎, 『社寺建築の研究-日本建築史論集III-』, 岩波書店, 東京, 1986.
 46. 關口欣也, 『五山と禪院』, 小學館, 東京, 1991.
 47. 鏡島元隆·佐藤達玄·小坂機融, 『譯註禪苑清規』, 曹洞宗宗務廳, 東京, 1992(1972).
 48. 『日本建築史-新建築學大系2-』, 彰國社, 東京, 1999.
 49. 野口善敬, 『元代禪宗史研究』, 禪文化研究所, 京都, 2005.
 50. 永井規男, 『中世五山における庫院とその変容』, 『建築史學』第38號, 建築史學會, 東京, 2002. 3., pp. 2-31.
 51. 韓志晚, 『宋元時代の禪宗伽藍における寢堂について』, 『駒澤大學禪研究所年報』第19號, 東京, 2008. 3., pp. 49-65.

A study on the History and *Bang-jang* of *Hoe-amsa* Temple

Han, Ji man

(Ph.D. student,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Tokyo·JSPS Research Fellow, DC2)

Lee, Sang hae

(Prof.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Hoe-amsa temple was renewed by Zen priest *Na-ong*(1320-76) in the later Goryeo dynasty(918-1392), and he introduced the institution of Zen Buddhism temple of Yuan dynasty(1271-1368) in China. And in 13-14 century, many Zen Buddhism temple were built in east Asia, like China, Japan, Korea and so on. *Hoe-amsa* temple became to be ruined in the middle years of Joseon dynasty(1392-1910), and the ruin was excavated rec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searching examination the history of *Hoe-amsa* temple by analyzing the historic records and excavation relics, and to clarify the function of *Jeongcheong*, east *Bang-jang* and west *Bang-jang* of *Hoe-amsa* temple, by comparative analysis with *Bang-jang* architecture of Zen Buddhism temple of Yuan dynasty.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said like follow. *Hoe-amsa* temple maintained the form made by priest *Na-ong* in spite of several times of repair in Joseon dynasty, and it was reflected in excavation relics of now. The *Jeongcheon* of *Hoe-amsa* temple was the space called *Chimdang* where the chief priest performed lectures and ceremony, the west *Bang-jang* was the living space of chief priest, and the east *Bang-jang* was lodging for honored guest. The architecture composed by *Jeongcheong*, east *Bang-jang* and west *Bang-jang* was the adaptation of institution of *Bang-jang* architecture of Zen Buddhism temple in Yuan dynasty, on the base of general architecture form of Goryeo dynasty.

Keywords : East Asia, Zen Buddhism temple, Goryeo dynasty, Na-ong, Hoe-amsa temple, Bang-jang, Chimdang
